

3월 복귀하면 내년 정원 원점으로 교육부 수용에도 의대생들 '싸늘'

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증원 동결에도 의대생 단체 냉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 등 요구
올해에는 집단휴학 엄정대응 할 것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지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대생이 복귀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은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이미 발표된 5058명이 된다.

이 부총리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 증원을 학교에 배분하고 잘 교육시키는 책임이 있는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의대증원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라며 "증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했다. /교육부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 의대 정원을 늘려 간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며 "2027년부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의대인력이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2026년 의대 증원 여부는 의대생 손에 넘어가게 됐지만, 의대생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 정원은 여전히 5058명까지 증원 가능한데다, 지난해 휴학했던 2024학번이 2025학번과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전국 의대 학생회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를 통해 휴학을 인정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반드시 3월 넷째 주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고려대, 융복합공간 '정운오IT교양관' 준공

물리·생물 등 첨단 실험실 마련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6일 정운오IT교양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 9일 밝혔다.

정운오IT교양관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443평(2만4605.87㎡), 높이 41.5m로 건립됐다. 건물에는 첨단 시설을 갖춘 교양 물리·생물·화학 실험실이 마련돼, 기존 캠퍼스 곳곳에서 이뤄지던 교양 실험과 실습이 하나의 건물에서 이뤄지게 됐다.

또한, 반도체공학과 연구실,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실과 강의실, 산학협력단,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실 등이 입주해 반도체, 정보보안 분야 연구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운오IT교양관은 2019년 고(故) 정운오 회장 유족이 전달한 기금으로 추진됐다. 정 회장은 1941년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평생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다. 정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 설립한 강간호텔을 매각한 뒤, 상속재산 가운데 200억원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김동원 총장은 "정운오IT교양관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연구·토론하는 핵심 거점이 돼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신규 가족기업 협약식

입주기업-대학 간 산학협력 논의

교수진은 각자의 연구 분야와 협업 가능성을 소개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6일 동탄 신라스테이에서 '3월 Biz교류회 및 신규 가족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승택 창업보육센터센터장과 강민구 AI·SW대학장, 홍승필·이용걸·박기홍·이양선 AI·SW대학 교수, 이미옥(창업지원팀) 교수, 이상준·장홍영·김동석 SW중심대학사업단 교수 등이 참석해 3월 Biz교류회를 진행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가족기업인 ▲티윌튼(대표 반재권) ▲테넷코드(대표 이경호) ▲다터바이오앤이슈(대표 정덕영) ▲예비 창업자(대표 김영기) ▲예비 창업자(대표 유보람)의 가족기업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에는 총 21개 기업이 입주하게 됐으며, 이들은 센터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신한카드도 '다동이 카드' 발급... 혜택 확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선택권 늘려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혜택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에게 경제·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10일부터 기존 우리카드 1개사에서 신한카드까지 확대해 다자녀 가족의 선택권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다동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신용·체크)로, 지난 2007년부터 발급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나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다동이 행복카드'를 실물 카드 대신 스마트폰 '서울지갑'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익도 높였다.

다동이 기준 완화와 함께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했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다양한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의정부시, 세계여자컬링선수권 점검 박차

김동근시장, 대회 준비상황 최종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다가오면서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7일 대회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컬링연맹(WCF)이 주관

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자, 세계 각국의 최정상급 여자 컬링팀이 참가하는 의정부 최초의 세계대회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실내빙상장을 방문해 빙질 상태, 냉동 설비, 제습기 등 경기 핵심 요소를 확인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의정부(경기)=김동택 기자 mk4303@

서울 학교, 사물인터넷으로 냉난방기 관리

시범사업 결과 유지관리비 50% 감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교 냉난방기의 통합형 유지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반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 학교를 확대한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IoT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합형 냉난방기 유지관리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극심한 가운데 노후된 에어컨의 잦은 고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oT를 활용하는 냉난방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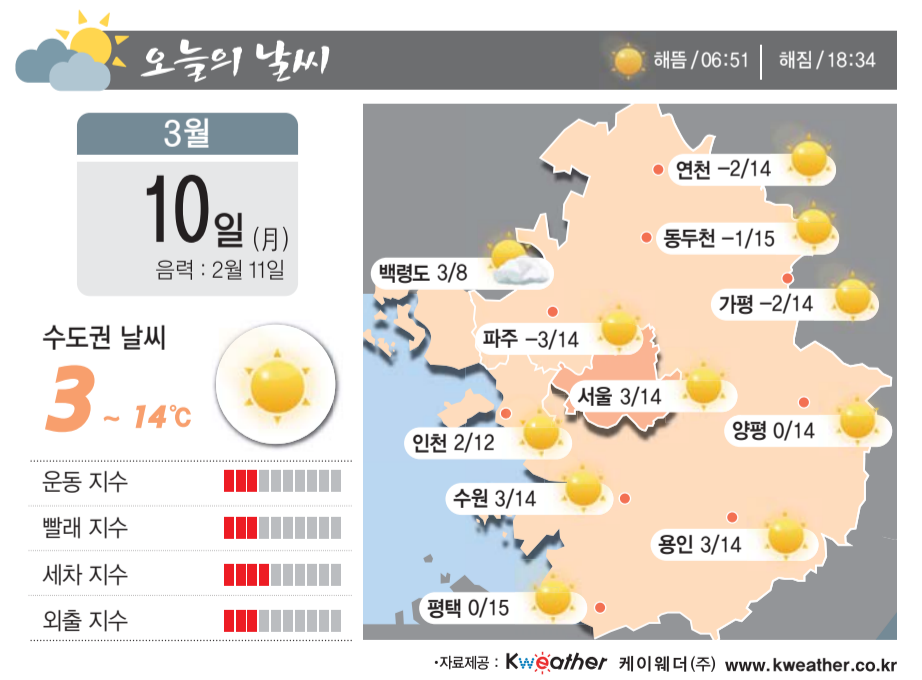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학교 내 냉난방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지관

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371교 대상으로 IoT 활용 냉난방기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학교 자체 보수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50% 감소했다. 향후 전체 학교로 확대 시 연간 약 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IoT 활용 냉난방기 사업대상 학교를 총 614교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공립학교 전체 1020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젤렌스키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돼 있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의 가자 점령과 개발 발언으로 핫트럼프 골프장에 시위대 공격

▲이스라엘, 10일 도하에 대표단 파견..가자 인질 석방 회담 진행 예고
▲이란 최고지도자 "갑박하는 강대국"...트럼프 대화 제안 거부

▲독일 보수·진보 대표 전당, 연정 구성 원칙에 합의
▲펜스, 트럼프 관세 정책 겨냥 "자유무역이 미국인 삶 개선"